



“무조건적 지지와 자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바탕”

강환욱

판동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기본소득 제안자

인터뷰어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국민기본소득, 30조 원.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집 댓글창의 논쟁은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궁극적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아닌 정파적 논쟁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불변의 가치이기에 '배고픔'을 가르쳐야 한다며, 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주창하는 이의 모습도 그대로다. 왜 세상은 급변하는데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가.

이는 결국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농촌에서 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게 된 이들이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부대의 주력은 노인 세대였다. 이해할 수 없었던 노인들을 농촌에서 만나며 그들이 겪었던 시대와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개개인의 생각은 시대와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섰다.

이처럼 경험은 무섭도록 불변하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좌표가 된다. 특히나 경험의 축적이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해진다. 해당 연령대의 실험을 진행하는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경험', '세계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기본소득을 이상으로서 접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일상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열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있는 사회는 기본소득 논의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화제의 인물은 강환욱 교사로 선정됐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60명이 안되는 작은 농촌학교지만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 누구나 매주 2천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당연히, '무조건적'이다. 자유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한 어린이들이 자라는 곳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15년차 교사 강환욱씨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건 하나의 사회죠. 지금은 작은 실험이지만, 큰 파장을 미칠 겁니다. 향후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즘 말대로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힙한 교사로 등극하셨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다른 인터뷰를 보면 10년간 공무원 같은 교사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웃음) 공무원처럼 살았다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주어진 것만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하지는 않았던 교사였죠. 2005년부터 교직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교사란 직업에 뜻을 품은 건 아니었죠. 교대에 진학한 건 젊었을 때 교직생활을 했던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막상 학교 현장에 와서는 기대와 달랐던 모습에 차이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죠.

지금은 공무원 같지 않은 교사가 된 건가요? 바뀌게 됐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생각이나 실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대학원에 다닌 건데, 그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마침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청주교대 상담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계기는 청주시에 살다가 보은군으로 이사를 온 것이에요.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촌 생활은 처음인가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가 바뀌다 보면,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만남도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 맞아요. 농촌 생활은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도 일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때부터는 청주에서 지냈어요. 보은과 인연이 닿은 건 16년 전이죠. 첫 발령지였어요. 하지만 보은이 직장 이상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5년 이상 출퇴근을 하다 보니 몸이 지치고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살 만했어요. 문화 생활도 나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매일 도로에서 낭비하던 시간이 확 줄어들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신 거죠?

- 우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같은 동네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더 관심 있게 살피게 됐어요. 또 저 스스로도 직장 생활이 가까워졌죠. 그 전엔 거리가 머니까 퇴근과 동시에 집에 빨리 가려는 마음이 컸어요. 학교나 마을에 관심을 가지려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유더군요. 출퇴근 시간이 15분 내외가 되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시 행복교육지구(학교 밖 교육 인프라를 키워내며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가 시작될 때였는데 위원회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의 교육협동조합인 햇살마루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희 협동조합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자, 조금이라도 마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어요. 마을 돌봄, 학교로 찾아가는 목공수업, 주말 목공수업이 그렇습니다. 삶이 좀 더 바빠졌지만 한편으로는 풍요로워지기도 했어요.

학교매점 내 포착된 불평등, 구조신호에 응답한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

그 와중에 한 가지 실험으로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

는데,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판동초의 어린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모든 학생이 매주 2천 원에 해당하는 화폐를 저희 교실 앞에 붙어 있는 기본소득 수령 게시판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조건은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입니다. 다만, 방학 때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요. 화폐는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매점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 졌다고 들었어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큰 사업이었죠. 신청과정보다는 학교협동조합을 인가받는 과정이 복잡했는데, 결국 2019년 9월에 설립을 완료하게 됐어요. (바쁘셨겠네요?) 네. 그 이전에 학습연구년을 하며 1년 동안 학교 근무는 하지 않았기에 총전이 돼 있는 상태였죠. 좀 방심했습니다(웃음). 학부모 4명과 제가 이사가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매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건강한 먹거리'였기에 생협에서 물품을 납품받아요. 그러다가 청주YWCA 아이쿱생협 이사장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의 지인이 100만 원을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잘 맞았던 거죠. 1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자마자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때 하셨던 고민이 어린이기본소득의 단초가 된 거네요.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어린이 기본소득과 연결된 건지 궁금하네요.

- 매점이 시작된 게 2019년 9월이니까,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학교에서 슈퍼마켓을 가려면 최소 20분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점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편의공간이에요. 그런데 매점에 오는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였죠. 학생 간 소비격차가 드러났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권리의 격차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차별을 빨리, 그리고 오래도록 느낀 아이들은 서러움이 남을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민이 시작된 거죠. ‘구조신호’를 보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집이 멀다고 알아서 자전거 타고 오라고 하지 않고, 학교 버스를 마련해주는 것처럼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향후 학교예산으로라도 최소한의 동등한 소비 수준을 마련해주는 것을 논의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앞서 이야기한 기부금 100만 원이 들어왔죠.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어린이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언어로 잘 표현하진 못해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교에 오는 게 즐거워졌다’ ‘학교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다’ ‘예전보다 매점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모두가 매점을 이용하니 화기애애해졌다’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어요. 특히 화기애애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매점을 잘 가던 친구도 혼자만 가니깐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매점에) 가지 못한 친구도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미안함과 서운함은 모두 불편함인데 그런 감정이 많

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또 4학년 학생이 그랬어요. 원래는 카드도 들고 다니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에, 그 학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받고 기본소득으로 생활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동등한 걸 누리면서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안함과 서운함, 기본소득이 이 감정들을 한 선상에 올려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교육자로서 이런 경험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어린이기본소득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완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책임을 받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후에 타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에 대한 지지는 협동이 필요한 시대의 기본적 가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고 하죠. 기본소득을 통해 평등과 자유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분명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흥미로웠어요.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었나요?

- 기본소득이라는 워딩은 뉴스에서 봤어요. 한 1년 전인 거 같은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보였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별하지 않고 주는 거니까요. 받는 입장에서든 모두 받기에 숨기거나 창피해할 필요가 없죠. 또 이웃마을인 옥천군에서는 서울시청년허브와 《월간옥이네》라는 잡지사의 지원으로 안내중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계와 일상을 한 단계 올려주었죠. 충북 진천에 있는 은여울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데,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자체의 화폐를 주면서 교내 매점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앞선 사례들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한 셈이죠.

단순히 용돈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 저희가 어린이 기본소득을 수령 게시판에 꽂아서 전달하는 것은 어른의 손을 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용돈이라는 말은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권리'죠. 한번 보세요. 용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보통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비교적으로 덜 가진 사람에게 주죠. 또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받을 수 없기도 해요. 이걸 교육현장에 적용하면, 좋게 말하면 '예의'를 가르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과 낯은 권위에 복종하는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거죠. 학교는 모두를 보듬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산만한 학생들은 존중받지 못해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혼나죠. 실은 어떤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좁고 네모난 책상과 의자에 갇혀야 하니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닐 시간인, 공장의 부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 같아요. 학교가 상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인가요? 우리 학교가 그러면 안 되요. 어른과 아이는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교사라고, 어른이라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혼내고 복종시킬 권리는 없어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대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용돈이 취소될 수도 있죠.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저조차도 잘 믿지 않습니다. 용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정적이지도 않고 간섭의 여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달라요. 누군가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에 선한 취지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 개별성 등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매주 2천 원이라는 돈은 저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그것도 오래도록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기본소득과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기존에 개인이 지불하던 것들을 공공



이나 국가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정해진' 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작은 학교의 경우 최근에는 스키캠프까지도 무상으로 진행해요. 이런 것들과 어린이 기본소득과의 주된 차이점은 자유 혹은 선택권에 있죠. 어린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돈이 주어져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자유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에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를 많이 묻지 않아요. 어른들이 판단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곤 하죠. 그것이 일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매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몇 주간 모아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 수 있고, 과자 종류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특히 농촌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죠. 보통 보호자가 사오는 학용품이나 과자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 매점에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누군가는 돈을 허투루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옷을 샀을 때 누군가 와서 '비슷한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산 거야?'라고 잔소리하

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고 아이들의 소비 행위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만입니다. 사치를 하는 사람은 남도 사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아이들의 소비 역시 선택의 영역이지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소득의 주홍글씨, ‘난 이렇게 바라본다’

일각에선 ‘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느냐’고 의미를 왜곡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나 조건(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따라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 조건을 말하길 원하신다면(?) 전 아이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침 9시부터 많게는 8교시까지 수업을 받아요. 무려 320분의 수업을 듣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이에요. 공부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노는 것 등이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가사노동도 일로 보지 않는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없이 주어진 권리’잖아요. 노동이라는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 자체도 누가 만든 건지 의심이 가요. 실제로 예전부터 상류층은 대부분 유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물려받고 형성했잖아요. 시점 좋을 때 산 부동산으로, 유산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노동인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노동윤리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만든 허상의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감해요. 하층민이 여유를 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막상 자신들은 정해진 노동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말이죠. 결국 그런 프레임으로 싸우는 건 우리 서민들 같아요. 정작 그들은 관람하고 있죠. 노동으로서의 소득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에 주어지는 소득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건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이야기 해주신 ‘허구적 노동윤리’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하고, 계간지도 열독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웃음). 이토록 열정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 열정까진 아닌데요, 과대 포장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웃음). 제가 네트워크에 가입한 시점은 작년 11월쯤이에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를 읽고 이를 개인 SNS에 언급했어요. 그 후 학교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항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 시민연대 대표였는데, 전화의 요지는 2가지였어요.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어린이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 띄워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처음 들었을 땐 무척 황당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타까웠어요. 어린이 기본소득은 순수한 교육목적이에요. 불평등한 상황을 아이들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학교에서 보완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기괴한 논리를 가진 비판이라도 이를 방어하고 역으로 비판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 그 당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찾았고 가입했어요. 기본소득에 대하여 제가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본전은 뽑았습니다. 참,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협동조합에 매년 어린이 기본소득 후원금과 연구적 지원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이걸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받으신 전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가 난 이후에 누리집 댓글이 500개 가량 달렸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정파적인 비판이더라고요. 다수가 공산주의, 전교조 등과 기본소득을 연결짓는 논쟁이었죠. 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우선 저는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요. 초임 때부터는 교총도 했었고요. 전교조도 맞아요(웃음). 마을 선생님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죠.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는 총복모임 회장이예요. 그러니 최근까



지 3개의 교원단체에 속해있던 셈이죠. 아마 색깔론에 빠져 21세기의 색맹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색을 양분하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권리 발견과 신장의 문제예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매주 2천 원 받는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자체가 사실 논리에도 안 맞고요. 작은 도전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 수준인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선 딱히 반박할 이유도 가지도 없다고 느껴져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이 판동초를 넘어서 확대되기 위해선 자원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 사실 묘안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가성비가 엄청난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쓰거든요.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건 이상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교육비예산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았거든요.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수치니 방법은 다 있겠죠. 그렇다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까요? 또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대된다면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현재는 주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 3천 원으로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요구만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요구가 없네요(웃음). 2천 원이면 아이스크림 2개 사면 끝이에요. 아껴 쓸 필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적다고 봐요. 또 앞으로를 생각해본다면, 저희는 매점이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자체의 화폐를 활용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모든 학교에 아이들의 격차가 존재할 겁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 소비자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승전 ‘수능’, 기승전 ‘일자리’가 아닌 자유로운 교육이 낳는 자유로운 인간

인터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사실상 기본소득의 핵심은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율성’, ‘자유’, ‘평등’ 등



다양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자율성’을 수업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표를 살림표로 바꾸고,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가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지만, 제 어린 시절과 비교해봤을 때 학교 운영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학기 말이면 진도에 쫓기고 아이들의 개별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기 힘들어요.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만 편성된 학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속도와 그 시점의 주요한 과제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양을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제 전체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삶을 보면, 과목별로 분절된 삶을 살지 않죠. 교과서는 참고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의 구성은 결국 수능이예요. 단계성이나 학문의 위계는 있으나 왜 하필 이 내용을 이 시점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 중심의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내용, 같은 교재를 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기승전수능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쟁체제에서는 결국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딱딱하고 주객이 전도된 시간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살림표라고 부르고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라는 주제 안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우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여백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자유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향후 교사로서 목표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으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모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생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자유학교’예요. 가칭이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립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립 내에서 초등 시기에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외 선택지가 없어요. 교육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요구가 있을텐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도 밖으로 나가서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실은 이런 제도 밖의 대안학교들을 인정해줘야 해요.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이 너무 야박하죠. 우리가 유럽의 교육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덴마크가 어떤 자생

적 학교든 공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하듯이 우리도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가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인가를 받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높은 학비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요. 그래서 두 작업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처럼 공립형 대안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전환하려는 작업, 그리고 기존의 대안학교를 최대한 존중하며 제도 내로 초청하는 작업이 말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자유학교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시키고자 함이에요. 그 공간에선 학년도, 수업시수도, 수업방식도, 교재의 유무도 학생과 교사가 합을 맞춰가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육이 한 인간의 해방, 자아의 발견과 발현을 목적으로 해야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격화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민주적이지도 않죠. 또 현재의 학교가 민주시민을 목표로 한다면 그 안의 어른들부터 민주적으로 살아야 해요.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투표로 뽑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대표를 투표로 뽑지 않고 승진된 사람이 오죠. 아이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괴리를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학교 대표인 교장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놀이가 수업에 밀려서 소외되면 안 되고요. 손도 부지런히 쓰면서 재주를 키울 수 있어야 하고요. 학교가 사람에 의해, 유행에 의해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이는 철학과 공동체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필요해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를 꿈꿉니다. 올해는 그런 자유학교의 가치를 세우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다지고 공개하는 것이 목표예요.

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잖아요. 자유를 중심에 둔 교육, 어린이 기본소득 등이 만들 사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벌써 궁금한데요.

-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현재 학생들이 가진 물질적, 정신적 지지는 격차가 상당히 커요. 아예 부재

한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아마도 ‘사회가 뭔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과 같은 경험을 간직한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아이들의 무조건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죠. 심리적, 물질적 안정감, 게다가 관계 형성에도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창조성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협동과 창조는 여전히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유와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라니 결국 아이들이 중등 시기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소중한 가치들을 충분히 누리고 자란 아이들이 만들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해요.